

노사상생 팽개치고 경영진 밥그릇 챙기기

긴급점검 - 광주형 일자리

<1> 리더십 부재가 부른 참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 첫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태어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측의 불참 결정으로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사업 추진 6년 만이자, 지난해 1월 31일 노사상생발전협정 체결 후 꼭 1년 3개월 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 2일 광주시청 앞에서 협약 파기를 선언한 노동계는 기자회견문 첫 머리에 "정치 높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썼다. 노동계의 강한 불신은 완성차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 박광태) 설립 시점부터 출발한다. 전과자와 비전문가들이 주요 임원에 선임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주중 노동자 초임 3천만원 묶고 이사를 연봉 3억8천만원까지 참다 못한 노동계 파기 선언 박광태 대표 사퇴 여론 확산

광주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부 광주시의원과 정치권도 "임원 선임부터 잘못됐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 받아온 '광주형 일자리'를 파탄으로 몰고간 원인과 문제점을 들여다 봤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지난 3월 청와대에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박광태 대표 등 주요 임원을 전문가로 교체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노동계는 4월 7일 청와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협약 파기 선언식도 예고했다.

노동계 경고에도 광주글로벌모터스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주주인 광주시만 노동계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쥐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상생'이란 태동 목표조차 모두 광주시에 떠넘기고, 제 이익을 챙기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26일엔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와 부대표 등 상임 이사의 통합 연봉을 최대 3억 8000만원으로 한정하는 안까지 통과시켰다.

노동계가 '협약파기'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요구해온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개선 시스템 구축,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임원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

고 나선 것이다.

임원이긴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 4대 원칙 중 하나인 적정 임금 및 적정 노동 시간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노동계를 크게 자극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시민세금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며 "노동자 연봉 평균 초임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정해 놓고, 대표 등 임원은 수억원 대의 임금을 가져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분노했다.

결국 참다 못한 노동계는 파기 선언식을 예정보다 앞당긴 지난 2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파기 선언식 자료를 통해 "대표 이사는 배임·횡령으로 유죄까지 받았던 사람"이라며 "왜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비전문가인 전직시장과 퇴직 공무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휴일을 맞은 5일,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광주 동남구갑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후보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이름을 알렸고(왼쪽), 민생당 장병완 후보측은 운동원들이 공인 광장에서 울음을 떨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9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휴일 거리·시장 등 곳곳서 유세전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과 휴일인 4·5일 광주와 전남 지역 여·야 각당 후보들은 선거구 곳곳을 돌며 표발을 다졌다. 후보들은 코로나19 우려에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도 시장이나 상가 등지를 돌며 지지를 당부했고, 거리 곳곳에는 유세 차량이 등장해 본격적인 선거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기사 3면>

간절한 후보들 차분한 유권자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가 유세 차량을 타고 주요 도로 나들목과 아파트단지 주변을 누볐다. 민생당 박주선 후보는 가벼운 산책에 나선 유권자를 만나고자 무등산 국립공원과 푸른길 공원을 찾았다. 또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선거운동원 없이 홀로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녔다. 정의당 최만원·국가혁명배당금당 이항숙 후보도 거리 인사와 공약 알리기로 유권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광주 서구를 민주당 양향자 후보는 토론회에 이어 풍암 호수공원과 운천저수지를 차례로 찾아 나들이객에게 인사를 건넸고 풍암동 상가를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도 금당산을 찾아 등산에 나선 유권자들을 만났고 이어 풍암호수 일대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유세를 펼쳤다. 정의당 유종천 후보도 풍암호수공원에서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얼굴 알리기에 노력했다.

전남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전통시장과 각 마을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이 지

역 격전지로 꼽히는 목포에서는 민주당 김원이,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주말과 휴일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다. 김원이 후보는 청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났고 유달산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다. 박지원 후보는 홀로 유세차를 타고 목원동, 삼향동, 원산동 일대를 돌며 지나가는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윤소하 후보도 청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고 이어 유달산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알립니다

제 65회 호남예술제

2020. 5.6(수) - 6.6(토)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16일(목)~22일(수)
미술·작문 5월 11일(월)~13일(수)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제65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 신학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5월 6일(수)~6월 6일(토)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방법: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宛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27일(월)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 개인 및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문의: 062-220-0541
-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후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목포시·나주시

光州日報社

광주 '광천동 재개발' 본격화 되나 ▶6면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새 도약 ▶10면

2격수를 아시나요? 맷감독의 시프트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호 12번 진짜가 나타났다 국민공천 개혁후보 17명!

열린민주당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12공약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
-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 8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